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기쁨, 감사 제목:역설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

성경:고후6장8-10절

8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다

바울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가 복된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살았기 때문이다.

바울의 직분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3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까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거리낌으로 받지 아니함. 넉넉히 이김

4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지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도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고, 바른 지식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더 자비롭게 하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행하였다.

6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을 마치 좌우에 두른 칼과같이 사용하였다.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때로는 영광도 받고, 때로는 모욕도 당하였으며, 비난도 칭찬도 받았다.

8 영광과 옥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기뻐할 일이 많아서 기뻐한 게 아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들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든다면 돈이 많이 벌리거나, 출세를 하거나, 장가를 갔거나, 아들을 낳았거나, 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뜻밖의 횡재를 하거나 해서가 아니다.

기뻐할만한 일들을 정해놓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기뻐하지 못한다. 그러나 삶 그 자체가 기쁜 사람은 항상 기뻐한다.

살아 있는 그 자체가 기쁜 것이다. 삶 그 자체가 기쁘다.

기쁨의 은사를 알지 못하는 목사님을 WLI에 인도한 적이 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기뻐하는지를 따지는데 할말을 잃었다.

-웃기지도 않고 웃으라 한다나?

기쁨이란 조건이 아니라 태도다.

얼마든지 죽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

사실 지금 당장 내 모든 꿈이 사라진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께야 인력이 무궁무진하지 않는가? 꼭 내가 그 꿈을 이루지 않더라도 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꼭 이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은 벌써 몇천년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신가?

꼭 내가 모래성을 쌓아야 엄마가 저녁밥을 주시고, 평안한 잠자리를 제공하시는가?

내가 지금 당장 천국에 간다고 한들, 상급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한들, 하나님께 손해가 무엇인가?

내가 부끄러울 뿐 아닌가?

꼭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해야 할 일이고 나도 힘을 보탬 뿐이다. 내가 앞장서지 않아도,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통령 상을 받을 수 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나의 기쁨의 조건은 아니다.

차라리 내가 오늘 기뻐하는 것이 내 꿈을 이루는 조건이 될 수는 있다.

진실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 가운데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마치 만찬에 요리사가 빠지고, 소금이 빠진다면 그것이 만찬일 수 있을까? 요리사는 감사고, 소금은 기쁨이다.

미리 소금을 치는 것이고, 나중에 더 칠수도 있는 것이 소금이다.

미리 기뻐하는 것이고 나중에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다.

당신은 심사위원인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오디션을 평가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바울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았다. 일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최선을 다하였다.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최선을 다하였다.

3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까지 않게 하고

최선을 다하면 기쁨이 솟는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기쁨이 솟는다. 하다가 게으르면, 하다가 싫증나면 반드시 기쁨은 사라지고 만족도 사라진다. 오직 성실한 사람만 기쁨을 얻는다.

왜 싫증이 나는가? 왜 게으르게 되는가? 댓가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악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자격지심이 들기 때문이다.

<신애라의 불굴의 머느리>

그러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면 저절로 기쁨을 얻는다.

4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지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도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때로는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때 고통스러워하며 좌절하며 실망하며 낙심하며 울며 신세를 한탄하였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일이 꼬이고 궁핍하게 되고 심지어 환난이 올 때 내가 가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는가?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내가 의식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가?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사소한 것들은 그냥 지나쳤다.

그리고 환영을 받을 때도 있었고, 비방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갔다.

8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
니라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중성격자, 또는 억지 웃음을 짓는 자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진실되게 기뻐하고 감사한다.

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자 같으나 유명한 자; 왜냐면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아주시는 바 된다.

죽은자 같음; 살아있으면 화를 내고 난동을 부를 것인데 그렇지 아니함. 그러나 살아있는 자.

징계를 당하는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결코 죽지 않는다.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
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산적한 근심거리가 많은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뚫을 길을 주시
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부요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낀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가지지 못한 것이 없는 자다.

다만 남들 가지고 싶어하는 것 거들떠 보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보면서 살기 때
문에 한쪽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엉뚱할지 모른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